

Counselors' Experience in Involvement with Alcoholic Elderly Abuse

Kum Ju Kw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Cyber University, 60, Solmae-ro 49-gil, Gangbuk-gu,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lderly counselors' experience in involvement with alcoholic elderly abuse cases at the elder protection agency. The data were collected over a period starting from October 2016 to January 2017. Focus group discussions were conducted with 21 elderly abuse counselors working at four elder protection agencie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data analysis results revealed 15 themes on 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s (SSDs) including 4 main themes such as (1) the vicious cycle of drinking and elder abuse, (2) confrontation with alcoholic elderly abusers, (3) a growing burden of alcoholic elderly abusers, and (4) passive involvement with alcoholic elderly abusers. Considering the limited involvement of elderly abuse counselors at the elder protection agency with alcoholic elderly abusers, it is recommended to provide assistance in cooperation with local alcohol agencies.

Key words: elderly abuse, elder protection agency, alcoholic elderly abuser,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필수 수단이라 여기는 반면, 만연된 음주문화가 알코올남용이나 중독 수준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둔감하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 유병률은 12.2%로 약 1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조사에서 나타난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교할 때 가장 높다(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16).¹⁾ 더 큰 문제는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받으면 재발률이 높고 개인의 신체적 문제만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질병이라서 단기간에 치료와 재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한 문제는 중독자 개인 영역을 넘어 가족을 병들게 하고 현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며(Kim, 2013),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각종 비행 및 범죄, 학대와 폭력 등의 문제와 연관성이 높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회문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사용장애를 개인 또는 가

⁺ Corresponding author: Kum Ju Kwon, Tel. +82-2-944-5018, Fax. +82-2-980-2222, e-mail. kkj@iscu.ac.kr

1) 알코올 사용장애가 12.2%, 불안장애가 9.3%, 기분장애가 5.3%(주요우울장애 5.0%), 니코틴 사용장애가 6.0%, 조현병 스펙트럼장애가 0.5%, 약물 사용장애가 0.2%였다

족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치료와 재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병원 입원 치료 중심이고 외래치로나 지역사회 중심 개입은 부족한 실정이다(Choi, 2013). 무엇보다 본인이 알코올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와 재활에 참여하는 등 자발적일 때만 병원 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치료와 재활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치료 또는 개입을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알코올 사용장애인이다. 이들은 알코올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하더라도 본인이 노력하면 알코올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치료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치료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면 치료 또는 개입을 완강히 거부하는 편이다.

치료와 재활에 비자발적인 알코올 사용장애인들은 종종 음주로 만취된 상태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 중 가족구성원에게 폭력 또는 학대를 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들이 행하는 가족폭력 및 학대는 일시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속 반복되며 경찰과 관련 기관에 신고·개입되어도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도 음주와 가정폭력은 동시에 발생하는 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Brecklin(2002)은 알코올 사용은 상해위험 정도를 1.5배 정도 높인다고, Fals-Stewart(2003)는 가해자들이 술을 마시지 않은 날보다 술을 마신 날에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가할 위험성이 11배나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0).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45.9%가 알코올의존군에 속한다는 결과가 있어(Cha and Shin, 2012) 가정폭력과 음주의 상관관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알코올 사용장애 문제를 가져 가정폭력을 행하는 가해자에는 본인 부모를 학대하는 노인학대도 있다. 현재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에서 알코올문제가 있는 성인자녀의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노인에게 주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2016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 4,637명²⁾ 중 13.7%(639명)이 알코올 사용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는 학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16).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접수 받아 도움을 제공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하 필요에 따라 노보전상담원)들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학대로부터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과정에서 알코올 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³⁾(이하 필요에 따라 알코올학대행위자)를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개입과정에서 학대발생의 요인을 조사하고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적에서 학대행위자를 만나 상담을 하거나, 필요한 원조활동을 진행한다. 하지만 노보전상담원들은 알코올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난해한 사례로 평가하며,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⁴⁾. 그 이유는 첫째, 노보전상담원은 알코올 관련 교육이나 훈련 과정이 부족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알코올학대행위자 개입에 한계가 있거나 자칫 불합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외부 사회복지서비스와 상담·약물치료 등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알코올학대행위자는 치료 및 재활에 비자발적이어서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셋째, 알코올 관련 치료와 재활에는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투여가 장기적이고 집중적이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목적과 정체성에 비춰 볼 때 개입의 수준과 역할에 딜레마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코올학대행위자와 관련하여 노보전상담원

- 2) 학대피해노인은 4,280명이나 학대행위자는 2명 이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수는 차이가 있음
- 3)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할 때 알코올 사용으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여기서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로 명명하였음.
- 4) 본 연구조사 이전에 연구자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만나 관련 의견을 질문하였을 때 받았던 의견을 정리한 것임

들이 겪는 한계와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개입의 기준이나 지침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보전상담원이 현장에서 알코올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에 의한 노인학대 사례를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경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입의 어려움, 한계, 개입했던 방법, 해결방안, 그리고 힘든 사례지만 사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좀 더 성과 있는 개입 과정 및 결과를 위해서 상담원이 말하는 요구사항과 정책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부자적 관점을 중요시 하는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서울과 경기도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알코올문제를 가진 노인학대행위자 사례를 개입하면서 가지는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알코올문제를 가진 노인학대행위자 사례를 개입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한 상담원으로서 겪는 체험을 개방적 태도로 기술할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 가지는 의미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노보전상담원이 경험한 실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나아가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개입방안 및 역할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문제를 가진 노인학대행위자 사례를 개입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서 겪는 체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 연구방법 중 Giorgi 현상학적 방법으로 노보전상담원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주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개인(4~7명)들이 동시에 만나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참여자 간에 상호작용이 활성화 되어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장점이 있다. 또한 분석방법인 Giorgi 현상학적 방법은 현상을 경험한 대상자의 기술을 연구자의 학문적인 배경에 따라 학문적인 용어로의 변형을 통해 경험의 본질적 의미구조를 밝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Kim & Kim, 2010).

2. 연구대상

Giorgi(1997)는 연구 참여자 선정은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경험을 충분히 기술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코올문제를 가진 노인학대 사례를 개입해 본 경험을 가진 서울과 경기지역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연구 참여를 의뢰하였고 이에 동의한 21명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은 총 4회에 걸쳐 노인보호전문기관 회의실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회당 최소 4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ge	Gender	Service area
A research participant 1	30	Female	Seoul
A research participant 2	28	Male	Seoul
A research participant 3	26	Female	Seoul
A research participant 4	28	Male	Seoul
A research participant 5	26	Female	Seoul
A research participant 6	28	Male	Seoul
A research participant 7	23	Female	Seoul
A research participant 8	47	Female	Seoul
A research participant 9	30	Male	Seoul
A research participant 10	26	Female	Seoul
A research participant 11	30	Male	Seoul
A research participant 12	27	Female	Seoul
A research participant 13	34	Female	Gyeonggi
A research participant 14	44	Female	Gyeonggi
A research participant 15	38	Male	Gyeonggi
A research participant 16	29	Male	Gyeonggi
A research participant 17	40	Female	Gyeonggi
A research participant 18	30	Female	Gyeonggi
A research participant 19	35	Male	Gyeonggi
A research participant 20	28	Female	Gyeonggi
A research participant 21	30	Female	Gyeonggi

명에서 최대 7명이 참석하였다.

포커스그룹 진행은 우선 시작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과정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았고 사후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에 대해서도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살펴보면 연령이 20대 10명, 30대 8명, 40대 3명으로 주로 20~30대 상담원이 다수였다. 성별은 남자 8명, 여자 13명으로 여자상담원이 약간 더 많았으며, 서울지역에서 12명, 경기지역 9명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2017년 1월 6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자료수집을 통해 얻은 연구참여자의 진술은 공통적인 하위 구성요소가 발견되고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충분한 기술들이 완성되어 더 이상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시점까지(Giorgi, 2004) 자료를 수집하였다. 포커스그룹은 1회에 120분 이상 소요되었으며 사전에 연구목적의 개요를 알려 연구주제와 관련한 사례 등에 대해 사전준비를 하여 좀 더 풍부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와 이전에도 만난 경우가 많아서 진행과정이 편안하고 개방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였으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의견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하여 구체적으로 발견된 범주나 과정을 확인하였다. 인터뷰 후에는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연구자의 느낌과 떠오르는 생각을 일지에 기록해 두어 의미 이해 및 분석에 참조하였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태도로 참여자의 체험에 대한 기술을 취함으로써 실제 사건이 되는 현상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Giorgi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수집된 자료는 Giorgi(2004)가 제시한 4단계 절차에 따라 첫째, ‘전체 인식하기’를 위해 연구자가 개방적인 태도로 인터뷰 내용을 따라가며 알코올학대행위자에게 개입한 노보전상담원의 경험을 전반적인

인식하였으며, 둘째, ‘의미단위 구분하기’는 참여자가 체험한 경험의 의미를 찾는 것에 집중하였고, 셋째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기’를 위해 앞의 단계에서 구분한 의미 단위들을 서로 대조하고 관련성을 찾아내면서 가장 적합한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로 통합하기’는 서로 연결되고 얽혀있는 의미와 관련된 구성요소들을 재편성하고 그것들이 가지는 사건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알코올학대행위자에게 개입한 노보전상담원의 경험에 대해 의미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체험한 알코올문제를 가진 노인학대행위자 사례개입 경험에 대한 참여자 진술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의미단위를 나누고, 의미단위들 중에 공통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묶어 의미단위 요약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15개의 하위구성요소와 4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1) 음주문제와 노인학대의 악순환

연구참여자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노인학대 사례 중에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노인학대를 행한 사례를 접한 경험에서 음주문제와 노인학대가 상호 얽히면서 문제가 악순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개인 및 가족관계 등의 상황적 요인 등이 알코올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어 복잡한 인과관계가 얽혀 있으며, 여기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들은 행위자의 음주 문제에 부절절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피해노인은 외부로 노출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면 학대행위자인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하여 학대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입을 거부한다고 한다. 이처럼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밖으로도 도움을 거절하는 사례는 이후 더 심각한 학대 발생으로 재신고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악순환을 받

복한다고 한다.

(1) 학대피해노인의 공존의존 현상

노보전상담원들은 알코올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관계를 보면 공존의존을 보이거나, 학대행위자를 자극하는 언행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악순환의 관계를 깨고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알코올릭 환자인 분들 중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옆에서 있는 학대 받는 노인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이 분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신다고요 (147)

둘 다 알코올릭이셨거든요. 술 깨면 둘이 손잡고 슈퍼 가서 술 사오고, 술 사와서 두 분이서 집에서 술 마시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 분이 할머니를 엄청 때리시고 그 행위가 끝나면 성관계를 갖고 (134)

(2) 피해노인의 부적절한 대응

노보전상담원들은 학대피해노인이 그동안 학대행위자의 알코올 문제를 나름 해결해보려고 했던 방법들은 부적절하거나 역효과를 가져오는 태도와 행동이었다고 한다. 학대피해노인들은 개입의 시점에서도 제시한 해결방안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탓이라고 하며 개입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피해 노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보면 분명히 피해노인에 대한 원인도 있는 거예요. 잔소리를 한다던가, 저렇게 맞으면서도 말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술 먹었는데 돈을 벌어오라고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보면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내버려두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어찌 잔소리를 하거나 (240)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도움을 못줘서...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이

간혹 계세요, 그러다보면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할 때 어머니가 반대를 하셔서 못하는 경우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288)

(3) 학대 은폐와 개입거부

노보전상담원들은 학대피해노인이 알코올학대행위자를 두려워하여 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축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대행위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노보의 개입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이 학대행위자를 감싸는 역기능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한 학대로 전개된다고 한다.

어르신이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접근을 모두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알코올릭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어르신이 다 막아놓아에 개입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중략) 결국에는 딸이 망상까지 보일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어르신이 상담원 손을 때리시면서 이제 그만오라고... (26)

어머니도 아들의 병원입원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 자체를 거절하시고 나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264)

(4) 학대피해노인의 양가감정과 일시적 도움 요구

노보전상담원들은 알코올학대행위자 개입을 피해노인이 받아들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녀가 치료 또는 처벌 등을 받는 것에 마음이 약해져 중간에 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고 한다. 자녀의 문제를 그대로 두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한편 자녀에 대한 안쓰러움과 안타까움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양가감정이 작동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학대피해노인들은 노보전도 알코올학대행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노보전을 통해 잠시 일시적 방편으로 문제로부터 잠시 피해 보려는 의도로 협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개월을 못 버티고 퇴원을 시킨 거예요. 계속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는 이제 절대 안 그렇게. 짹 짹 비니까 그러니까 아 애가 정신 차렸나 부다 해가지고 또 꺼내 놓으면 또 술을 먹는 거예요 (214)

너희들이 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입원치료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기간이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니까 입원치료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입원한 3개월은 너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42)

2) 알코올학대행위자에게 직면하기

연구참여자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알코올 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개입기술이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노인학대 사례 중 알코올 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를 직접 만나 상담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알코올학대행위자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도 하고 선임자의 조언 또는 슈퍼비전을 받으며 학대행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가진 노하우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거나 행위자의 변화가 쉽지 않아 지치고 소진되기도 하고, 알코올 관련 전문가 집단 또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계속 반복되거나 심각해지고 있음을 경험한다고 한다.

(1) 알코올학대행위자에 대한 편견 깨기

노보전상담원은 기관에서 일하는 초기에는 알코올 중독자 관련 사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으로 학대행위자 개입에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었으며, 초기 때에는 학대행위자 상담이 어렵고 상담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만나보면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인식할 뿐 아니라 이들도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며 실제 학대행위자를 만나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초반에는 알코올중독 학대자를 보면 겁이 나서 조심스럽게 상담하고 혹시라도 저도 신변 위협 있을까봐 문 앞에서 상담하고 그랬었거든요 (94)

알코올 상담자 만날 때 전화보다 먼저 직접 찾아뵙고 만나는 게 중요한 거 같았어요, 피해어르신도 그렇지만 알코올 학대 행위자인 아들을 직접 만나서 그 동안 쌓였던 그런 울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데 (277)

(2) 알코올학대행위자와 관계형성의 필요성

연구참여자들은 학대 신고접수를 받으면 현장방문을 하게 되고 학대행위자를 가급적 만나려는 노력을 한다. 알코올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으나 일단 만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급적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수용하는 태도를 갖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과정에 참여토록 노력한다. 이는 노인학대 상황을 감지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 학대 원인인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 참여를 꾀하게 하거나 피해 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에게 본인을 믿어주는 신뢰하는 상담원한테 얘기를 먼저 스스로없이 하니(중략) 가해하시는 분들이 시시때때로 그렇게 술김에 막 전화를 하시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안 좋다 하면 112에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가족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든가 그런 식으로 (24)

오히려 학대행위자가 우울증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란 저희랑 덜 아닌 덜을 해서 어르신이 떨어져 살고 계셨는데 어르신과 함께 살게 해 달라, 그럼 그 조건으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상담을 하자 해서 00에 거주하셨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오셔서 상담을 하셨어요 (103)

(3) 알코올학대행위자에게 인내하기

노보전상담원들은 여러 경험과 선임들의 노하우 및 슈퍼비전 등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알코올학대행위자를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인내와 지속적 설득, 전화보다는 직접적인 면담, 치료 및 재활 의지 촉진 등을 시도하면서 변화가 있었던 사례가 있어 성취감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에 비해 행위자의 변화가 쉽지 않아 지치고 소진되며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딜레마를 겪기도 한다고 한다.

슈퍼비전에 영향도 좀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실장님께서 학대행위자를 만날 때 조심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만약에 슈퍼비전을 받았으면은 저도 학대행위자를 만나러 갔을 때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갔을 것이고요, 그냥 “가”이렇게 그리고 항상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라 만나보면 달라진다. 이런 항상 말씀 많이 하셔서 이게 저도 상담원 자체도 그 거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지 않고 다가가는데 (68)

그 어르신은 시설을 가셨는데 일시보호하고 시설에 가기 까지 그 아들을 설득하기 까지 술을 드시니까 어르신을 잘 케어 하지 못하지않아요, 그 어르신은 치매가 발견돼서 설득하는 과정이 1년 정도 (13)

3) 부담 가중되는 알코올학대행위자

연구참여자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노인학대행위자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학대피해노인에게 가한 행위가 심각하고 위기상황인 경우가 많다보니, 위기사례로 긴급하게 현장에 가지만 학대행위자의 저항이 부딪치면서 마음의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이 후 개입의 과정에서도 알코올 문제를 가지게 된 복합적인 원인들이 뒤엉켜 있고 알코올 문제와 학대가 계속 악순환 되어 여러 관련 기관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 어려움을 갖는 사례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1) 심각한 응급 학대사례로 신고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인 참여자들은 알코올학대행위자에 의한 노인학대는 술이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노인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내 아 버리거나 물건을 부수고 던지는 등의 신체적 학대와 고함, 욕설, 비하 등의 정서적 학대, 그리고 돈을 요구하거나 갈취하는 경제적 학대 등으로 신고 접수되어 긴급하게 현장조사 및 위기개입을 해야 하는 사례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아드님이 술을 드시고 부모님께 화를 내고 매일 내쫓고 어르신들은 매일 찹질방에서 있으시다 견디다 못해 주민센터에 신고해 의뢰된 사례인데 요 (286)

아드님이 너무 폭력적이셔서 술을 마시면 흥두개로 머리를 때리고 그래서 여기 머리가 이만큼 뽀뽀한다던지 아니면 갈비뼈를 발로 차서 갈비뼈가 부러져 경찰에 신고 되어 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9)

(2) 개입 및 치료에 저항하는 학대행위자

연구참여자는 학대행위자들은 알코올문제와 학대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며 치료에 대한 자발적 의지도 거의 없고 상담원이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만나는 것도 거부하는 등 완강한 저항에 부딪친다고 한다.

내가 술을 먹었지만 나는 문제 되는 게 없어, 막 이러하는데 내가 옆에 있어서 내가 널 때렸지만 이게 뭐 내가 왜 문제야? 그리고 막 여자는 3일에 한번 씩은 꼭 때려야해 (242)

알코올릭 학대 행위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본인이 알코올릭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간섭을 하거나 본인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먹는다 정도가 많고요. 치료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2)

(3) 복합적 문제가 심각한 학대행위자

연구참여자는 학대행위자를 만나면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진할 정도로 유약한 성향이며, 이들의 개인력을 보면 과거의 이혼, 실업, 실패, 트라우마 경험 등으로 상처와 정신적 문제를 보여 현재 경제적·심리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감당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 위축, 자괴감, 죄의식을 갖고 있어 우울상태가 심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알코올학대행위자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순진하고 어련애 같고 그렇게 저는 많이 느껴졌거든요 (21)

대부분 이제 직업이 없거나 결혼 못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어릴 때 부모님과과의 이차적인 부분 학대 경험들이 누적돼 있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마시긴 하지만 이제 또 재발 될 확률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이죠 (196)

(4) 알코올과 노인학대 악순환에 의한 최악 상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알코올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 사례는 병원에 입·퇴원 등을 반복하지만 알코올 문제가 몇 번씩 재발되고 입·퇴원을 하지 않더라도 술문제로 인해 학대행위를 반복하여 경찰이나 주민센터 등이 몇 번 씩 개입한 적이 있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서 접수되는 편이 많으며, 실제 알코올 치료 및 재활 등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입원치료는 정말 답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번 예전에는 강제입원도 많이 시켜드리고 했지만, 근데 나오면 똑같고 더 보복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반복되는데 (22)

사건 처리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 기관 말고도 외부기관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경찰이 공권력이 있는 (7)

4) 알코올학대행위자 개입방향 모색

연구참여자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인학대 사례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노보전에서 개입하는 기준을 나름 마련하게 되는데 노보전은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알코올 문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관련한 정보 공유,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의 역할은 노보전에서 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비자발적 알코올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실제 알코올학대행위자는 거의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

(1)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에 우선을 둬

노보전상담원은 학대행위자에게도 개입해야 하지만 노보전이 가진 자원과 능력 내에서 알코올학대행위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목적이 노인학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알코올학대행위자는 알코올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노보전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사례는 노보전은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학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며 학대행위자는 노보전을 넘어 지역사회 외부기관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학대노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맞춰서 사례개입을 하는데 좀 더 맞는 거 같고요 (69)

근데 술을 먹고 자기를 위협을 하는데 처음에는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에는 나를 밀쳤고, 이제 나에게 칼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 라고 하시거든요.(중략) 위협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알코올병원을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안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 그래서 무서우니까 전화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거 같은데요 (203, 204).

학대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노인한테 인제.. 피해노인과 그 다음에는 피해노인에게 주력을 하되 학대행위자에게 주력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관의 개입인 거 같아요 (55)

(2) 알코올 관련 비전문가 인정

노보전상담원은 현장에서 알코올학대행위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노인과 연결되어 있기에 학대행위자로서 개입할 필요는 있지만 자신들은 알코올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특히 알코올학대행위자는 알코올 치료와 더불어 전반적인 재활을 지원해야 하는데 인적·물적자원의 한계도 있고 노보전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알코올 문제는 노보전의 역할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노인학대 사례를 개입하는 사회복지사 상담사잖아요. 그런데 알코올릭은 병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이분이 알코올릭인지 여부를 판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전문가처럼은 될 수 없단 말이죠 (139)

우리의 업무의 역할이 있고 타기관의 업무의 역할이 있다. 그러면 타기관이 해야 할 업무는 타기관한테 넘겨주는 것이 전문적인 것이다라고요, 그게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알코올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나거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그 지역사회에 내 그 자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148)

(3) 지역사회 협력체계에서 노보전 역할

노보전상담원은 학대피해노인 중심이라 학대행위자

의 알코올문제 개입은 한계가 있어 노보전이 주되게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라고 보았지만 학대피해노인과 연계되어 있기에 알코올학대행위자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보전에서는 관련 전문기관에 알코올학대행위자를 의뢰하여 개입하도록 하고 노보전은 연계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관련한 정보 공유,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의 역할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제가 생각하는 어디까지 행동해야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우선은 학대 행위자를 좀 연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본인이 알코올 치료가 본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정말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이끌어 낼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289)

적극적으로 노보전이 개입을 한다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우리가 있음을 확인해 드리고 이 알코올릭인 학대행위자한테도 계속 외부에서 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잘 있냐고 하고 그러면 계속 외부에서 보고 있음을 의식해서 술을 덜 먹지 않을까 혹은 어르신한테도 안전하게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 시켜주고 (154)

(4)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알코올학대행위자

연구참여자인 노보전상담원은 알코올 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 개입은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관련 기관에 주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한다. 그러나 연계하려는 기관들마다 이들에게 집중하여 개입하는데 제한점을 내세우며 소극성을 보이고 함께 연계하여 개입하고자 하여도 서로의 개입방향이 달라 어려움이 많아 알코올 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거나 심각해지고 있음을 경험한다고 한다.

알코올상담기관에 연계를 해도 그 쪽에서 적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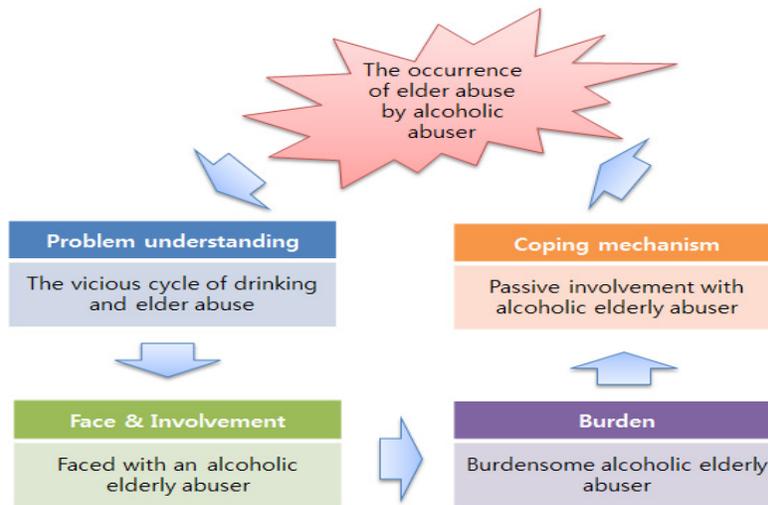


Figure 1. The structure of elderly abuse counselors experience of involvement in alcoholic elderly abuser case

적으로 개입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 개입되는 상황도 아니어서 (101)

정신질환이던 알코올이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로 인한 어떤 노인 학대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쪽에서 집중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들이 대개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208)

2. 알코올학대행위자 개입 경험에 대한 의미구조

노보전상담원의 알코올학대행위자 개입 경험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자유상상의 변형 (free imaginative transformation)이 요구되는데 이는 참여자의 기술 (description)에 서로 얽혀있는 의미와 관련된 구성요소들을 재편성하고 그것들이 원래 사건의 유형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도록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구조를 배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Kim & Kim, 2009).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구조는 본질을 의미하고 구성요소들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Giorgi, 2000; Kim, 2005).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보전상담원이 현장에서 알코올학대행위자 개입 경험의 의미구조는 이들과의 관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체적인 과정의 맥락이 구성되어 있다. 즉, 노인학대 현장에서 노보전상담원이 알코올학대행위자 사례에 개입하면서 보여

주는 현상은 ‘현장에 그대로 직면하고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며 얻은 경험 중심의 개입과정’으로 나타난다. 노보전상담원들은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음주문제가 노인학대와 악순환을 반복하는 어려운 사례임을 알지만 학대문제를 가진 사례이기에 학대행위자에게 개입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난관을 부딪치며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고민과 방법을 강구해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가중되고 소진을 경험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알코올에 대해 비전문가임을 인정하고, 노보전의 주요 목적에 집중하는 것을 기준으로 관련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식을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도 알코올학대행위자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음주와 학대는 반복되어 다시금 신고·접수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알코올문제가 있는 노인학대행위자 사례를 개입하는 과정에서 갖는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서울과 경기 지역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Giorgi 현상학적 방

법으로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체험한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인학대행위자 사례개입 경험은 최종적으로 15개의 하위구성요소와 4개의 구성요소(음주문제와 노인학대의 악순환, 부담 가중되는 알코올학대행위자, 알코올학대행위자 직면하기, 알코올학대행위자 개입방향 모색)를 도출하였으며, 의미구조는 ‘현장에 그대로 직면하고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며 얻은 경험 중심의 개입과정’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은 일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에 대해 두려움과 편견 등을 가지고 첫 만남을 가졌으나, 경험과 실수를 통해 각자의 노하우를 가지고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상담원은 알코올 문제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고 학대피해노인을 돕는 기관이라는 목적과 기능으로 학대행위자 개입에 한계 기준을 두어야 하며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알코올학대행위자는 과거부터 여러 기관에서 개입을 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태도가 대부분이고 어떤 기관도 이들에게 집중하여 개입하지 못하여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하였다.

이와 같은 순환구조로 인해 알코올학대행위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이 개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에 접근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 “기관과 기관 사이 사각지대에서 맴돌고 또 맴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자발적 알코올학대행위자까지도 적극 개입하는 지역사회 통합 사례관리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 체계 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명확한 역할 및 수행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보다 학대피해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보고 있어, 알코올 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를 중점으로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이와 같은 사례를 현장에서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장애 관련하여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기본 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 중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소수시간에 한정되며, 그 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서 일시적으로 실시될 뿐이다. 이로 인해 기관의 선임자 및 중간 관리자에 의한 슈퍼비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선임자를 통한 슈퍼비전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개입기술 및 방법과 더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알코올 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는 개입에 비자발적 대상자인 경우가 많아 관련 일개 기관에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관 내 사례관리보다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요구되기에 지역사회 내 알코올문제를 가진 사례 개입 관련하여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비자발적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음주와 학대는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의 비자발적 대상자에게 개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복지원팀 파견이 있는데 이는 알코올 사용장애에서 회복한 회복자상담가 2인과 자치구 실무자 1인으로 구성된 회복지원팀이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에게 음주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알코올사용장애의 문제를 경험했던 회복자들이 비자발적인 대상자를 만나고 상담하면서 치료와 재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대상자를 치료 및 재활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내 알코올문제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에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적극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보호망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

지 않던 노인학대 사례 개입과정에서 알코올학대행위자를 1차적으로 접하고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나 노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학대행위자이기에 통합사례관리에 한 축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학대행위자 개입의 일환이라는 면에서도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 행보가 요구된다.

References

- Brecklin, L. 2002. The Role of Perpetrator Alcohol Use in the Injury Outcomes of Intimate Assaul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 185-197.
- Cha, Jin Gyung and Hyun Joo Shin.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Treatment Judicial System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Problem Drinkers Committing Domestic Violence. *Korea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27(2): 272-304.
- Fals-Stewart, W. 2003. The Occurrence of Partner Physical Aggression on Days of Alcohol Consumption: A Longitudinal Diary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1): 41-52.
- Choi, Song Sik. 2013. A Study on Relapse Prevention Strategies of Alcoholics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Koreanology*. 48: 307-248.
- Giorgi.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y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1.
- Giorgi, A. (2004).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Korean Qualitative Research Center(ed.). *Symposium of Nursing College of Ewha Womans Universit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Korean Qualitative Research Cente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0.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Drinking for Policy Development*.
- 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16. *The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 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16. *2016 Report on the Status of Abuse of Elderly in Korea*.
- Kim, Eun Ha. 2005. The Lived Experience of Comfort by the Hospitalized Low-Income Elderly Women Living Alone.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Kim, Hye Sun.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nd Codependency in ACOAs of University Student.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9(4): 83-101.
- Kim, Hye Sun and Eun Ha Kim. 2010. Experience of Divorced Single Parent Mother; Experiences that Have Begun as a Life Crisis.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6(1): 219-242.
- Kim, Yeong Kyung and Eun Ha Kim. 2009.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1(6): 718-732.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은하. 2005. 저소득층 독거 여성 노인이 입원 중 체험한 편안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경, 김은하. 2009. 간호학생의 체중조절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1(6): 718-732.
- 김혜선. 2013.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ACOA) 남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과의 관계. *한국위기관리논집*. 9(4): 83-101.
- 김혜선, 김은하. 2010. 이혼한 여성 한부모 어머니의 경험: 삶의 위기에서 시작된 경험들. *한국위기관리논집*. 6(1): 219-242.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0. 가정폭력과 음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개발.
- 차진경, 신현주. 2012. 가정폭력 문제음주자의 특성분석을 통한 치료사법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2): 272-304.
- 최송식. 2013. 한국사회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예방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48: 307-248.

알코올문제가 있는 노인학대행위자 사례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개입 경험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노인학대 사례 중 '알코올문제가 있는 노인학대행위자(이하 알코올학대행위자) 사례를 개입하는 과정에서 갖는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상담원의 경험을 알기 위해 질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진행되었고 서울과 경기지역 4개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방법은 개별기관별로 포커스그룹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Giorgi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5개의 하위구성요소와 4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4개의 구성요소는 음주문제와 노인학대의 악순환, 부담 가중되는 알코올학대행위자, 알코올학대행위자 직면하기, 알코올학대행위자 개입방향 모색이었다. 의미구조는 '현장에 그대로 직면하고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며 얻은 경험 중심의 개입과정'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알코올문제가 있는 노인학대행위자 사례 개입의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자발적 알코올학대행위자까지도 적극 개입하는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 체계 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의 안전한 보호 입장에서 협력해야 할 명확한 역할과 수행에 대해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알코올학대행위자, 질적연구

Profiles **Kum Ju Kwon** : She received her B.A., M.A.,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07. She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ul Cyber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06. She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is elderly welfare, elder abuse, the rights of the elderly. She has published 24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3 books, including co-author(kkj@iscu.ac.kr).